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brary Use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Reflecting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김 보 일 (Bo il Kim)**

초 록

이 연구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도서관 일반 현황,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 법제도 등의 환경분석과 도민(학생, 일반) 대상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도서관 직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충청남도를 6대 지역생활권역으로 구분하고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과제 발굴, 충청남도 도서관 직원 대상 의견을 수렴하여 총 20개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생활권 도서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강화와 함께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for the use of libraries and the promotion of the reading culture by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along with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It, therefore, analyzed the general condition of libraries, infrastructures for libraries and reading culture and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Chungcheongnam-do, and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inhabitants' (students and general people) use of libraries and reading culture, and librarian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proposed the policy for the use of 20 libraries and the promotion of the reading culture, by dividing Chungcheongnam-do into six regional settlement areas, discovering policy tasks for the use of libraries and the promotion of the reading culture and collecting suggestions from librarians living in Chungcheongnam-do,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in Chungcheongnam-do, and therefore, suggest a desirable policy agenda. To pursue the policy propose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ole and the status of libraries representing for metropolitan regions and to secure adequate personnel and budgets, in addition to effort made by libraries located at regional settlement areas.

키워드: 지역사회, 지역생활권역, 공공도서관, 도서관 이용, 독서문화진흥

Local Community, Local Living Areas, Public Libraries, Library Us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 이 논문은 2022년 '충남도민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연구'로 수행된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boil1979@hnu.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2월 7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2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2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27-51,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1.027>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기반시설로서 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지식·정보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 독서진흥을 위해 힘쓰는 공공시설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여가를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유익한 지식·정보자료를 이용하며, 흥미 있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민이 공공도서관을 방문·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공공도서관 회원등록 비율은 53.0%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전인 2019년 51.4% 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 국민의 절반 수준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격화되고 있는 충청남도는 2021년 기준 도민의 공공도서관

회원등록 비율이 34.6%로 2019년 43.0%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 독서지표로 활용되는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²⁾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성인 독서율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합산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는 35.7%로 2019년 대비 9.2%포인트 하락하고, 60세 이상은 23.8%로 '19년 대비 8.6% 포인트 하락하여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의 독서율이 54.7%이며, 충청남도의 독서율이 37.8%임을 통해 볼 때 서울 중심의 수도권 보다 충청남도과 같은 지방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읽는 습관적 독서인구가 17.3%(매일+일주일에 한두 번), 간헐적 독서인구가 20.5%(한 달 이상에 한두 번),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가 62.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독서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 대상의 변화와 도서관 역할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및

1) <https://www.libsta.go.kr/>

2)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pTab=01&pSeq=1574&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독서 진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전략 모색과 더불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 수립을 통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 환경변화에 따라 충청남도 대상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교육, 사회, 문화, 공간, 인구 구조 등 지역별 일반 현황 조사분석 및 진단과 지역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 환경분석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법제도·정책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방문 빈도, 방문 목적, 장애 요인 등 도서관 이용과 독서 빈도 및 시간, 독서환경, 독서 활동 참여 등 독서문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과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 토대로 충청남도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 충청남도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³⁾에 따라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에 따라 6대 지역생활권역(중추도시생활권_천안시·아산시, 혁신도시생활권_홍성군·예산군, 서해북부생활권_서산시·당진시·태안군, 내륙생활권_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서해남부생활권_보령시·서천군, 남부생활권_논산시·계룡시·금산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생활권역에 따라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은 국가 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5년 주기로 마련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단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의 연계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단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학술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신영, 차성중(2022)·김종성(2013)·윤혜영(2019)·윤희운, 오선경, 이재민(2016)·장덕현(2020)·장덕현, 구본진(2021)·전경선, 신동희(2022)·정유경 외(2021)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김신영, 차성중(2022)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의성군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유사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 비교, 의성군 주민의

3) 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NMENU00880

도서관 이용현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방안, 비이용 요인, 신규 건립 도서관 등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성군 도서관 발전을 위한 4대 전략과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성군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도서관서비스에 초점을 둔 5대 서비스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했다.

김종성(2013)은 대구지역의 도서관 운영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효율과 규모 충족성 높은 도서관 건립 지향,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윤혜영(2019)은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일반 현황과 행정체계 분석을 통해 발전과제로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사서직원 충원, 장서 확충,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예산 증액, 정책담당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2016)은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해 모집단 인구수 비율을 기준 대구광역시 시민 385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도서관 이용실태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도서관 확충(신설)요망 지역 등의 내용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및 대구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현주소를 연계·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 전국 실태조사와 대구광역시 시민 의식조사 등과 비교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덕현(2020)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

자 300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부산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중심의 공공도서관,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신속한 장서 제공, 디지털서비스 확충과 역동적인 홍보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장덕현, 구본진(2021)은 도·농복합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공공도서관 이용현황 및 지역주민의 요구분석하고 국내외의 도서관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 지역 도서관별 특화도서관 운영, 공동체 자료 아카이빙, 홍보 및 마케팅 협력 등의 기장군 도서관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전경선, 신동희(2022)는 경기도 양평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평군 지역특성 및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양평군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평군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력 및 장서 확충,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신규 도서관 건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유경 외(2021)는 대전광역시 시민 1,383명을 대상으로 대전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도서관

에 대한 불만 사항 또는 비이용 요인과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향후 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전지역 도서관만의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계획 및 개발, 온라인공간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이용 요구 조사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이용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윤희운, 오선경, 이재민(2016)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대구의 지역별 인구수에 따른 비례 할당을 통해 도서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적 균형적 의견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주민 대상 도서관 이용 및 비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선행 연구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주민의 생활권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2.1 인문·사회 환경

충청남도의 인문·사회 환경을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는 서해를 중심으로 해양관광레저의 발전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인구의 이동 및 관광 발전에 이점을 갖고 있으며, 문화 교류와 협

력의 장으로써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청남도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망을 바탕으로 백제문화 역사자원 및 갯벌 생태자원, 온천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이 15개 시·군 중 9개에 달하고 있어, 정주 환경 개선과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충청남도의 인문·사회 환경을 6대 지역생활권역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중추도시생활권(천안시·아산시)은 KTX,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지역생활권역 대비 정주 여건이 우수하여 생활환경 확장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풍부한 문화기반시설과 독립기념관 및 현충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혁신도시생활권(홍성군·예산군)은 내포신도시 개발을 통해 충청남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직장인 중심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우 고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시 직장인 중심 청년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 트랙(two track)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이응노기념관, 추사고택 등 역사·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공공도서관이 이와 연계한 독서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북부생활권(서산시·당진시·태안군)은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천수만·합덕제 등 생태환경의 보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미읍성, 심훈기념관, 만리포, 꽃지해

수육장 등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서관 특성화에 반영이 가능하다. 내륙생활권(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백제문화가 융성한 지역으로 감사, 마곡사, 낙화암, 궁남지,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등 백제문화 역사자원과 나대주풀꽃문학관, 신동엽문학관, 서동문학관, 근대문화거리 등 인문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연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과 백제학을 지역생활권 도서관의 특화 주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출산과 함께 충청남도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그에 대응하는 정책과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대응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서해남부생활권(보령시·서천군)은 해안과 도서 지역 중심으로 해양생태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갯벌, 해수욕장, 항구 등을 중심으로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도서관 특성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해남부생활권 내 보령시와 서천군 모두 인구 감소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부생활권(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군사 훈련소 및 핵심 군사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접경하여 대도시 생활환경 연계성이 높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이 다소 취약하며 권역 내 격차가 있어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도서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대체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생활권별 인문·사회 환경에 따라 혁신도시생활권, 내륙생활권, 서해

남부생활권의 역사문화자원·생태환경자원·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서관의 특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뚜렷한 충청남도 전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생활권에 따라 고령자, 청년,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 전략과 함께 도서관의 역할을 다변화하여 생활문화기반 시설의 대체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2.2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를 분석해 보면 먼저, 공공도서관은 15개 시·군에 63개관이 분포되어 있으나 중추도시생활권(천안시·아산시)에 19개관(30.2%)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지역생활권의 인구 밀집에 따른 조성 결과라 하더라도 지역 균형적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고령자가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해 도서관 접근성을 강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도서관, 도서 배달 등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2019년 수행한 「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⁴⁾에 따르면, 도서관의 경우는 접근성에 따른 최저 기준이 750m로

4)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90154>

〈표 1〉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현황

지역	인구(명)	도서관수(관)	1관당 인구수(명)
중추도시생활권	983,066	19	51,740
천안시	658,486	12	54,874
아산시	324,580	7	46,369
혁신도시생활권	176,125	5	35,225
홍성군	99,324	2	49,662
예산군	76,801	3	25,600
서해북부생활권	405,263	12	33,772
서산시	176,645	5	35,329
당진시	167,092	4	41,773
태안군	61,526	3	20,509
내륙생활권	197,359	8	24,670
공주시	103,145	4	25,786
부여군	63,774	2	31,887
청양군	30,440	2	15,220
서해남부생활권	149,153	7	21,308
보령시	98,408	5	19,682
서천군	50,745	2	25,373
남부생활권	208,291	11	18,936
논산시	114,483	4	28,621
계룡시	43,331	2	21,666
금산군	50,477	5	10,095
충청남도	2,119,257	63	33,639

설정하고 분석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10개 등급 가운데 3등급(구간 한계값 758m) 수준에서 85.7%의 인구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는 평균 7등급(3,494m)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룡시가 가장 접근 거리가 가까운 1,275m(4등급) 수준을 보였으며, 태안군이 6,522m로 가장 먼 근접거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생활권역으로 보면 중추도시생활권(3,680m), 서해북부생활권(3,563m), 내륙생활권(3,254m)로 충청남도 평균 2,846m보다 열악하다. 반면, 중추도시생활권(1,780m), 서해남부생활권(2,424m), 남부생활권(2,366m)으로 충청남도 평균 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생활권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남도의 독서환경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인 지역서점은 2021년 94곳으로 2019년 대비 40곳(74.1%)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추도시생활권 소재 지역서점이 45곳으로 충청남도 지역서점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소재하여, 지역서점 역시 지역적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과 지역서점, 출판사 등과의 협력이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서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표 2〉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 상황

등급	도서관(최저기준 750m)		
	구간한계값(m)	누적인구비율(%)	충청남도
1	253	39.7	
2	448	68.7	
3	758	85.7	
4	1,275	91.8	계룡시
5	1,907	94.1	아산시, 천안시
6	2,637	95.7	당진시, 보령군, 서천군, 청양군
7	3,494	96.9	금산군, 논산시, 서산시, 예산군, 충청남도
8	4,625	98.0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9	6,522	99.0	태안군
10	27,753	100.0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생활권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사각지대의 도서관 건립뿐만 아니라 지역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정보화 기기의 도입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도민 정보 요구에 따른 장서개발과 문화체험 기반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2.3 법제도 및 정책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문화진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는 별도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청남

도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3차(2019~2023) 도서관 발전종합계획」과 「제3차(2019~2023)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제1차(2019~2023)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충청남도 도서관 정책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충청남도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정책적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간 분리된 조례에 대한 통합 또는 연계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 충청남도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관과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과의 협

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3. 조사 설계

3.1 조사 목적

이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환경 변화에 따라 충청남도 대상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실태조사는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빈도, 이용 목적, 도서관 이용 장애 요인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 실태 파악과 독서율, 독서 빈도, 독서 목적, 독서 선호 분야, 독서 장애 요인 등을 통해 독서문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2 조사 대상 및 범위

이 연구는 충청남도 도민 대상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전 지역의 도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와 결과 분석 그리고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안하는 연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의 도서관 이용자로써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2,200명과 충청남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1,800명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실사를 통해 2022년 9월 1일부터 동년 10월 15일 동안 자기기입식 조사

또는 개별면접조사, 학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조사기간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방역지침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표본은 충청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인식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 분석 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지역별 분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도민 대상 조사와 동일한 기간 동안 충청남도 도서관 직원 121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의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3.3 조사 내용

조사 내용으로 성인 대상으로는 독서 생활, 독서량과 책의 선택, 독서환경 및 도서관 이용, 독서 활동 참여, 도서관 및 독서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독서 생활, 독서량과 책의 선택, 독서 환경 및 도서관 이용, 독서활동 참여, 학교 부모님 도서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도서관 직원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방안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결과 분석 시 전국 단위 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및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조사(서울시) 등의 조사 항목을 준용·참조하되,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관련 정책 주요 파악 부분을 중점 추가하였다.

4. 조사 결과

4.1 성인 조사 결과

4.1.1 성인 대상 일반적 조사 결과 분석

충청남도 도민 중 성인 2,200명이 응답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실태 조사 결과, 충청남도 도민 중 지난 1년간 1권 이상을 책을 읽은 성인의 독서율은 49.1%이며, 매체별로는 혁신도시생활권이 종이책 44.8% 8.0권, 전자책 17.2% 13.4권으로 가장 높으며 오디오북은 내륙생활권이 12.0% 8.8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 종이책 독서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전자책 독서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독서 장애요인으로는 타매체 이용 31.3%, 독서 습관 미흡 27.4%, 여유 없음 25.1%, 시간 없음 2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도서관 이용률은 21.0%이고, 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목적은 독서/대출이 63.4%로 가장 높으며,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바빠서가 33.2%로 가장 높았고 멀어서라고 응답한 것도 18.5%로 나타났다. 독서 활동 참여 경험으로는 내륙 생활권에서만 10% 이상이며, 참여해본 독서활동으로는 독서행사, 독서 캠페인, 독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공간/시설, 서비스, 자료, 직원, 프로그램, 접근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혁신도시생활권/남부생활권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활문화공간, 독서자료/정보 제공, 실생활 정보 제공, 평생교육 기관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화되어야 할 도서관 정책으로는 생활 독서

프로그램 권장, 복합문화시설 역할, 도서관 접근성 제고, 장서 확충 순으로 나타나 생활문화공간으로의 도서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충청남도민 성인의 전년 대비 독서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독서환경 조성 과 독서 기회의 마련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서행사 등 독서활동 참여도는 도서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여하에 따라 참여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자료 서비스,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와서 적극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1.2 성인 대상 지역생활권역별 결과 분석

성인 대상 조사결과를 지역생활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생활권은 충청남도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도시권으로 공공도서관은 도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실생활 정보 제공,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역할과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률 (20.6%)과 독서율(49.2%) 제고를 위한 도서관 활동 활성화 및 생활 속 독서 프로그램 확산이 요구되었다.

혁신도시생활권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15.2%로 충청남도 평균(21.0%) 대비 낮으며, '독서치유' 프로그램 참여 희망 비율은 6대 지역생활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서치유' 및 다채로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서해북부생활권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13.7%로 충청남도 평균(21.0%) 대비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비이용자들의 이유 중 하나로 '도서관 이용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응답이 19.8%로 충청남도 평균(11.2%)보다 매우 높아 도서관 이용 시간 연장, 무인도서대출/반납기 확대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응답)에 대해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이 64.6%로 다른 문항보다 약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크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요구된다.

내륙생활권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중복응답)에 대해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47.0%) 요구가 6대 생활권 중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응답 특성은 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독서 장애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책 이외 매체 이용', '일(학생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와 함께 '시력 저하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큰글자책 코너 운영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 고령자 특성화 사업의 충실한 운영이 필요하다.

서해남부생활권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책을 읽는 독서인구가 14.4%로(매일 0.7%, 일주일에 한두 번 13.7%) 충청남도 평균(27.5%) 대비 절반 수준이며, 6대 지역생활권 중 최저로 나타났다. 매체 이용자(독서자)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종이책 2.1권, 전자책 2.6권, 오디오북 1.0권으로 6대 생활권 중 최저이며 충청남도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11.4%로 충청남도 성인 평균

(21.0%) 대비 절반 수준이고, 6대 지역생활권 중 최저에 해당되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6대 지역생활권 중 최저이다. 이에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독서의 계기와 습관을 만드는 다양한 독자개발 프로그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부생활권에서는 독서 장애 요인(1순위 기준) 중 '시력 저하 등으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20.4%로 충청남도 평균(9.3%) 대비 2배 이상 많아 큰 글자 도서 등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한 장서 제공 및 독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1.9%(충청남도 평균 56.4%)로 6대 지역생활권 중 가장 높아, 독서 대화를 늘리는 독서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초·중·고 학생 조사 결과

4.2.1 초·중·고 학생 대상 일반적 조사 결과 분석

충청남도 도민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800명(학교급별 각각 600명)을 조사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실태 조사 결과 연간 독서율 및 독서 빈도로 전체 독서율 90.6%이며, 전년 대비 독서량은 증가가 감소 보다 많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연간 독서율(복수응답)은 종이책이 70.4%로 가장 높으며 전자책이 그 다음으로 62.1%, 오디오북 9.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독서량은 전자책 28.2권, 종이책 26.9권, 오디오북 7.3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 장애요인으로는 독서습관 부족, 다

른 매체 이용, 책 읽기가 싫어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순이며, 연간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9.3%로 책 읽기,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도서관 분위기가 좋아서, 공부·숙제 순의 이유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은 71.8%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참여한 독서 활동으로 글쓰기, 그리기, 독서퀴즈, 책 읽기, 말하기, 전시, 강연회 순이다. 참여 희망 독서 활동으로는 독서퀴즈 대회, 그리기 활동, 책 읽기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독서캠프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58.4%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학교도서관의 편리한 이용, 교실에 학급문고 설치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학교 밖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56.8%이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독서/대출, 시험공부, 숙제 자료 찾기, 친구 만나기, 인터넷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바라는 점으로는 ‘독서 강요하지 않기’, ‘책 더 많이 사주기’,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서점 이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에 바라는 점으로는 ‘재미있고 좋은 책’, ‘친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중학생의 독서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애 독서 그래프에서 독서 습관이 결정되는 시기로 성장기 독서 습관은 가정과 학교, 도서관 등의 독서환경에 의해 좌우되므로 독서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를 재미있게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며,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율과 효과를 제고하

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2.2 초·중·고 학생 대상 지역생활권역별 결과 분석

초·중·고 학생 대상 조사결과를 지역생활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생활권은 학교에서의 독서 활동 실시 비율이 68.8%로 저조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도서관 등의 적극적인 독서 활동 장려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실시 비율이 충청남도 6대 지역생활권 중 가장 저조한 51.8%로, 보다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요구된다.

혁신도시생활권은 도서관에 바라는 점에서 ‘재미있고 좋은 책’(4.11점), ‘친구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3.81점),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생겼으면’(3.67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행사’(3.54점) 항목이 평균치 대비 높은 편이며 6대 지역생활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독서 활동 실시율은 76.0%인 반면 참여율이 69.6%로 학교 독서 활동 및 ‘한 학기 한 권 읽기’ 실시율 제고 등 학교 독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북부생활권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 이유로(복수응답) ‘자리가 없어서’(25.0%), ‘책을 빌려주지 않아서’(25.0%) 등을 제시함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독서 활동 실시 비율이 68.7%로 6대 지역생활권 중 최저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독서 활동 장려가 요구된다.

내륙생활권 공공도서관 이용률(49.3%)이 6대 지역생활권 중 최저 수준으로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평균(56.8%)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도서관에 바라는 점’에 기반한 도서

관 이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서해남부생활권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그 이유로(복수응답) '자리가 없어서' (27.3%), '책을 빌려주지 않아서' (27.3%) 등을 응답함에 따라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 희망 독서 활동(복수응답)으로 독서퀴즈대회 30.3%, 말하기 활동 29.4%, 그리기 활동 22.9%, 글쓰기 활동 22.0%, 책 읽기 프로그램 20.2%, 탐방 활동 19.3%, 독서캠프 18.3%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독서퀴즈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방법으로 독서 촉진 및 독후활동 활성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남부생활권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 학교 중 '특별한 표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6.3%로 6대 지역생활권 중 가장 많음에 따라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표현 활동과 연계되도록 학교 독서교육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도서관 직원 조사 결과

4.3.1 도서관 직원 대상 일반적 조사 결과 분석

충청남도 도서관 직원 121명을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 정책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복수응답)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48.8%), '이용자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37.2%), '도서관 건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33.9%), '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33.9%) 순으로 응답하였다. 강화되어야 할 공공도서관 정책(복수응답 기준)으로는 '생활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활동 권장' 42.1%,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 확대' 38.8%, '기존 도서관의 리모델링' 28.1%, '다

양한 장서 확충과 책 소개 서비스' 26.4%, '가까운 곳에 도서관 건립' 24.8%, '디지털 자료 확충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4.9%,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충' 12.4%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복수응답 기준)서는 '다양한 독서자료와 정보의 제공'(74.4%),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50.4%), '지역 문화의 기록과 보존'(24.8%), '평생교육기관의 역할'(22.3%),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17.4%)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기본계획들을 대체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내 지역 도서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3.2 도서관 직원 대상 지역생활권역별 결과 분석

직원 대상 조사결과를 지역생활권역별로 살펴 보면 중추도시생활권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응답)로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71.1%,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 50.0%, 실생활 정보(육아/학습/취업/건강) 제공 26.3%, 지역문화 기록/보존 23.7%, 평생교육기관 1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화되어야 할 공공도서관 정책(1순위)으로는 독서활동 권장 26.3%, 가까운 곳에 도서관 건립 21.1%, 복합문화 시설로서의 역할 확대 2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과 생활문화공간으로 역할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독서 활동 권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생활권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 응답)에 대해 생활문화공간으로 여가/취미활동 지원(77.8%)이 가장 높았으며 강화되어야 할 공공도서관 정책(1순위)에서도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 확대(27.8%), 장서 확충/책 소개 서비스(16.7%) 순으로 나타나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주축으로 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북부생활권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 응답)로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77.3%,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 36.4%, 지역문화 기록/보존 36.4%, 평생교육기관 18.2%, 실생활 정보(육아/학습/취업/건강) 제공 13.6%,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 지원 13.6%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에 대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으로서의 역할과 독서활동 권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생활권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 응답)로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93.3%,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 46.7%, 평생교육기관 33.3%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평생교육기관 및 이용자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서해남부생활권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 응답)로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75.0%), 강화되어야 할 공공도서관 정책(1순위)으로 장서 확충/책 소개 서비스(33.3%)을 가장 요구하

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및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 활동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서 확충/책 소개 서비스와 독서활동 권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부생활권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역할(복수 응답)에 대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68.8%,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 50.0%, 평생교육기관 31.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강화되어야 할 공공도서관 정책(1순위)으로는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31.3%, 독서활동 권장 25.0%, 가까운 곳에 도서관 건립 12.5%, 장서 확충/책 소개 서비스 1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과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 활동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고려한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독서 활동 권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5. 충청남도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방안

5.1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도출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충청남도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제안 방향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연계,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6대 지역생활권의 특성과 환경분석에 따른 정책 과제 발굴, 충청남도 도민 생활 속에 있는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방안 모색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수립 및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충청남도 도서관 직원 및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6대 지역생활권에 따른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6대 지역생활권별 전체 20개의 충청남도 6대 지역생활권별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5.2 충청남도 6대 지역생활권에 따른 정책 제안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와 관련한 환경을 분석하고,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와 함께 6대 지역생활권의 특성과 환경분석에 따른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5.2.1 중추도시생활권(천안시·아산시)

중추도시생활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 분석 결과 충청남도 내 정주 여건이 우수하며, 젊은 인구가 많아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청남도 유일의 장애인도서관인 충남점자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어 장애인 중심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환경이 상

<표 3> 충청남도 6대 지역생활권별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6대 지역생활권	정책과제
1. 중추도시생활권 (천안시·아산시)	실생활정보 요구 충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정보요구 맞춤형 독립출판물 장서개발 다양화 지속가능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책 강화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정책 추진
2. 혁신도시생활권 (홍성군·예산군)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지역 자원연계 문화체험 기반 독서 치유 프로그램 확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도입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3. 서해북부생활권 (서산시·당진시·태안군)	독서 생활화를 위한 일상 독서환경 확산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도입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4. 내륙생활권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독서 서비스 차별화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독서 문화 콘텐츠 개발 청소년 공감 도서관 서비스 환경 조성
5. 서해남부생활권 (보령시·서천군)	도서해양생태문화 특성화 도서관 서비스 전략 추진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
6. 남부생활권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독서운동 활성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셀프 러닝(self learning) 기능 강화 도서관 내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기반시설 대체·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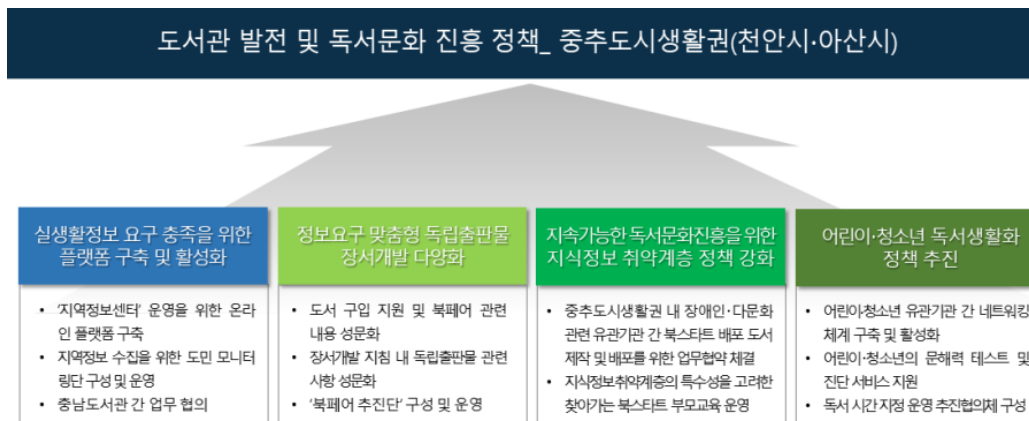
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로는 성인 대상으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률 및 독서를 제고를 위한 도서관 활동 활성화 및 생활 속 독서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하며, 학생은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청 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과 생활문화공간으로 역할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독서활동 권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서관 직원의 결과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충청남도 도민의 실생활 맞춤형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정보서비스 및 장서개발 정책 추진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강화 그리고 가치와 효과성이 입증된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확대와 지역자원과의 연계 추진의 방향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중추도시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중추도시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실생활정보 요구 충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와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독립출판물 장서개발 다양화, 유관 기관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식정보취약계층 정책 강화, 학교도서관과 연계 어린이 청소년의 독서 생활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맞춤형 정보요구 충족에 따른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충청남도 도민 누구나 독서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인 독서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 생활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2.2 혁신도시생활권(홍성군·예산군)

혁신도시생활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 분석 결과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시 직장인 중심 청년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 트랙(two track)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역사·관광자원과 연계한 독서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 강화가



<그림 1>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체계_중추도시생활권(천안시·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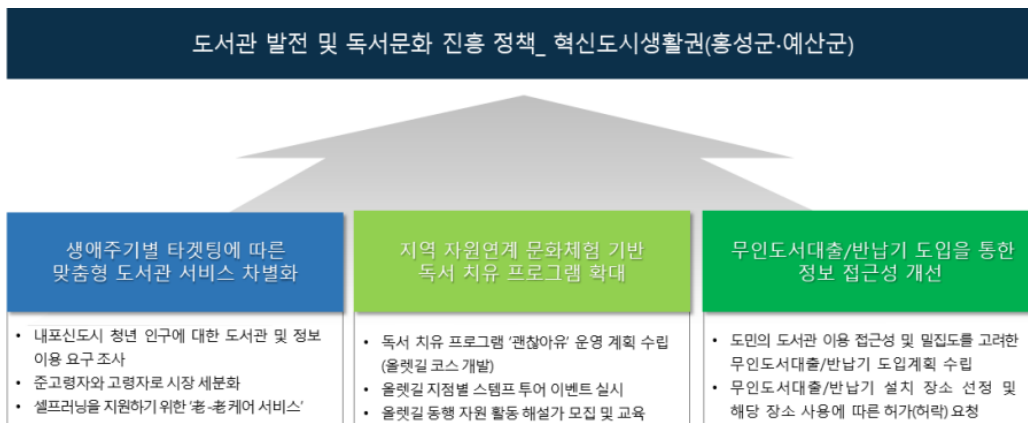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 성인 대상으로 독서 치유 및 다채로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에서의 독서 활동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의 경우는 생활문화공간(여가/취미활동 지원), 다양한 독서자료/정보 제공,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주축으로 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에 따른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기반 생애주기별 타겟팅(청년, 노년층),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올렛길의 도보 탐방을 통한 독서 치유 및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충청남도 도민의 보편적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도입의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혁신도시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혁신도시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내포신도시의 청년 인구와 당해 생활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 지역 자원연계 문화체험 기반 독서 치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스마트 기기 도입을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타겟팅 대상의 맞춤형 독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제고, 지역 자원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도민의 휴식과 심리적 치유, 문화관광 활성화,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기기 도입을 통해 충청남도 도민의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2.3 서해북부생활권(서산시·당진시·태안군)

서해북부생활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결과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천수만 등 생태환경의 보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서관 특성화에 반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로 성



<그림 2>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체계_혁신도시생활권(홍성군·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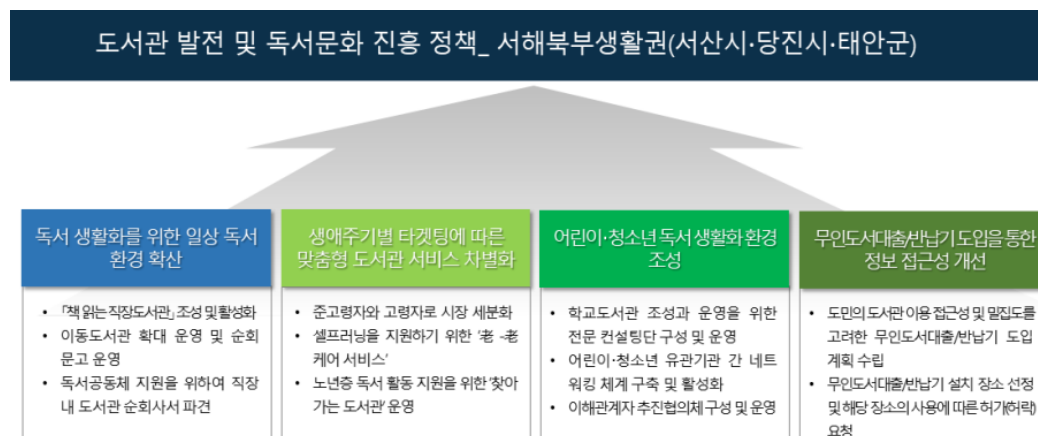
인 대상으로는 도서관 이용 시간 연장과 스마트도서관 확대 등으로 도서관 서비스 제고 노력이 요청되며, 직장 내 독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으로는 학교에서의 독서 활동이 취약함에 따라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적극적인 독서 활동 장려가 필요하며, 학교도서관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은 공공도서관의 독서 활동 권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타내어 성인과 학생의 독서 활성화가 필요한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 생활화를 위한 일상 독서환경 조성,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기반 생애주기별 타겟팅(노년층), 도민의 보편적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도입의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서해북부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서해북부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는 직장 독서 환경 개선을 통해 독서 생활화를 위한 일상 독서환경 확

산과 생애주기별 노년층 대상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학교도서관 연계 어린이 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 스마트 기기 도입을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타겟팅 대상의 맞춤형 독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제고,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으로 독서 활동 장려,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기기 도입을 통해 충청남도 도민의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2.4 내륙생활권(공주시·부여군·청양군)

내륙생활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결과 백제문화가 융성한 지역으로 문화기반시설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과 백제학을 지역생활권 도서관의 특화 주제로 선정 가능하며, 저출산과 함께 충청남도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그에 대응하는 정책과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대응 전략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그림 3>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체계_서해북부생활권 (서산시·당진시·태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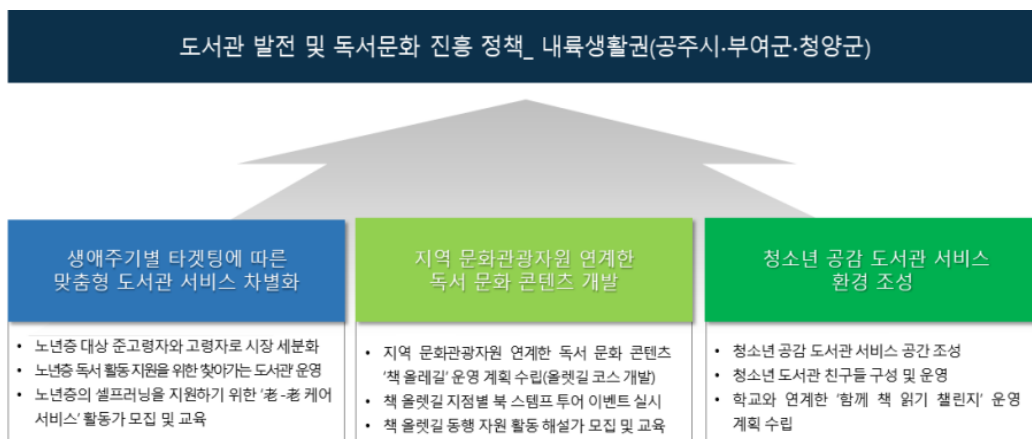
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로는 성인 대상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성화 사업의 충실한 운영이 필요하며, 학생 대상으로는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취약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기반 생애주기별 타겟팅(노년층),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독서 문화 콘텐츠 개발,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지속 이용을 위한 공감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내륙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내륙생활권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는 생애주기별 노년층 대상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독서 문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청소년 공감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생애주기에 따른 타겟팅 대상의 맞춤형 독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제고, 지역 문화관광자

원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환경 홍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도서관 서비스 참여를 통해 독서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2.5 서해남부생활권(보령시·서천군)

서해남부생활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결과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개발과 인구감소지역 선정과 낮은 청년인구 등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로는 성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노력과 독서의 계기와 습관을 만드는 다양한 독자개발 프로그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으로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따라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그림 4〉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체계_내륙생활권 (공주시·부여군·청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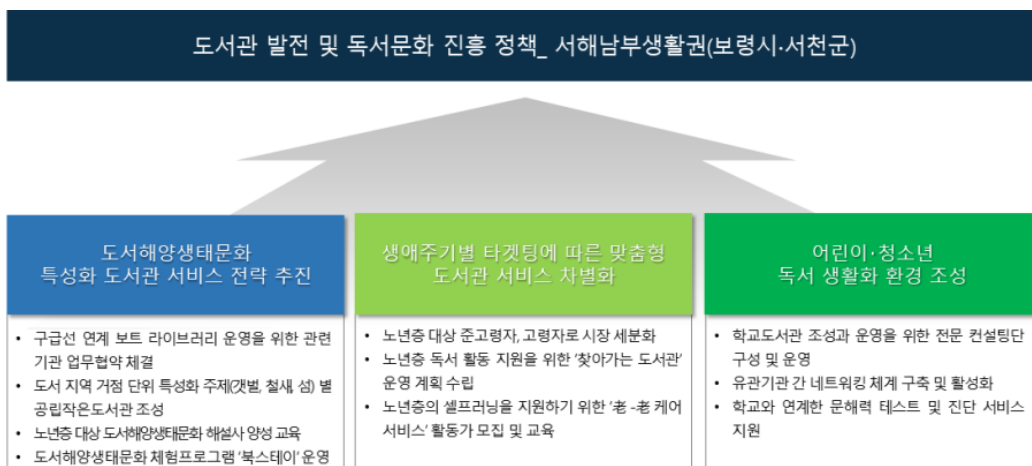
독서자료/정보 제공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서 확충/책 소개 서비스와 독서 활동 권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해양생태자원 및 도서(섬) 지역 환경을 활용한 특성화 추진을 통해 독서환경 및 도서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기반 생애주기별 타겟팅(노년층),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일상 독서환경 조성의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서해남부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서해남부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도서해양생태문화 특성화 도서관 서비스 전략 추진과 생애주기별 노년층을 대상으로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자원 활용과 도서 지역 환경을 고려한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정체성 중심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타겟팅 대상의 맞춤형 독서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 제고와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으로 독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5.2.6 남부생활권(논산시·계룡시·금산군)

남부생활권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환경분석 결과 군사 훈련소 및 핵심 군사 시설 등이 많아 국방 시설과 연계한 정책 개발 필요성이 충분하며, 국방 시설 관련 종사자 및 가족과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정책 병행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 다소 취약하여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도서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로는 성인 대상으로 큰글자책 등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한 장서 제공 및 독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독서 대화를 늘리는 독



<그림 5>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체계_서해남부생활권(보령시·서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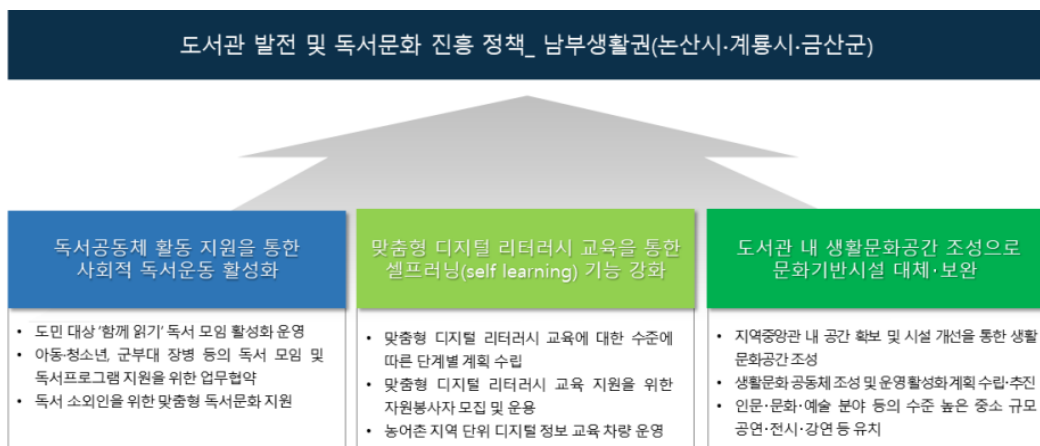
서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으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읽기에 서 그치지 않고 표현 활동과 연계되도록 학교 독서교육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과 독서활동 권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사회적 독서 운동 활성화, 셀프 러닝(self learning)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군 주요 공공도서관 내 생활문화공간 조성의 추진 방향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남부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남부생활권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독서 모임 활성화 및 독서 소외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지원이 있다. 그리고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독서운동 활성화와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셀프러닝 기능 강화 그리고 도서관 내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기반 시설의 대체/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서관 내 생활문화 공간

조성으로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 제고, 생활 문화 플랫폼으로서 충청남도 도민의 문화적 요구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환경변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별 생활문화 환경의 격차로 인해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독서를 통한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그림 6>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체계_남부생활권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와 관련한 환경을 분석과 충청남도 도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이며 실천가능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6대 지역생활권별로 전체 20개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추도시생활권(천안시·아산시)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실생활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정보요구 맞춤형 독립출판물 장서개발 다양화, 지속가능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책 강화,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혁신도시생활권(홍성군·예산군)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지역 자원연계 문화체험 기반 독서 치유 프로그램 확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도입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서해북부생활권(서산시·당진시·태안군)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독서 생활화를 위한 일상 독서환경 확산,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어

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도입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내륙생활권(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독서 서비스 차별화,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독서 문화 콘텐츠 개발, 청소년 공감 도서관 서비스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서해남부생활권(보령시·서천군)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도서해양생태문화 특성화 도서관 서비스 전략 추진, 생애주기별 타겟팅에 따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차별화, 어린이·청소년 독서 생활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남부생활권(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으로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독서 운동 활성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셀프 러닝(self learning) 기능 강화, 도서관 내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기반시설 대체·보완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6대 지역생활권별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생활권 도서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 지역 도서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1. 1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국토교통부 (2019). 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출처: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90154>
- 김신영, 차성중 (2022).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경북 의성군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95-117.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95>
- 김종성 (2013). 대구 지역 공공도서관의 현단계와 발전 과제. 인문과학논총, 33(33), 105-134.
- 문화체육관광부 (2023. 1. 10).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pTab=01&pSeq=1574&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1.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https://www.law.go.kr>
- 윤혜영 (2019).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 53(2), 69-90.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069>
-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인식 조사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99-124.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99>
- 장덕현 (2020).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54(1), 51-7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051>
- 장덕현, 구본진 (2021). 도·농복합지역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125-14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2.125>
- 전경선, 신동희 (202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양평군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03-4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03>
- 정유경, 박성희, 권선영, 김보일, 구정화 (2021).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239-258.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3.239>
- 충청남도 (2023. 1. 1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충청남도. 출처: 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NMENU0088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 Koo, Bon-Jin (2021). A research on the strategic plan of public libraries in urban-rural complex a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125-14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2.125>
- Chang, Durk-Hyun (2020). Perceived needs of users toward public library service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51-7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051>
- Chungcheongnam-do (2023. 1. 10). The 4th Comprehensive Plan of Chungcheongnam-do (2021-2040). Chungcheongnam-do. Available: 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NMENU00880
- Jeon, Kyung-Sun & Shin, Dong-Hee (2022). Research on revitalizing public libraries reflecting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Yangpyeong-gu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403-4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03>
- Jeong, Yoo-Kyung, Park, Sung-Hee, Kwon, Sun-Young, Kim, Boil, & Koo, Joung-Hwa (2021). Citizens' perception,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ir public library services in Daeje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239-258.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3.239>
- Kim, Jong-Sung (2013). A study on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focused on the public libraries which are affiliated to local governments.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33(33), 105-134.
- Kim, Sin-young & Cha, Sung-Jong (2022). A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depopulation areas: focusing on Uiseong-gu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95-117.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95>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f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1. 10).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f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vailable: <https://www.law.go.kr>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1. 10). A Survey of National Reading in 202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vailable: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

- pTab=01&pSeq=1574&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Local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upply Status Materials and Analysis Guide. 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90154>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1. 10).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Yoon, Hee-Yoon, Oh, Seon-Kyung, & Lee, Jae-Min (2016).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99-124.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99>
- Yoon, Hye-Young (2019).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69-90.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069>

